

“禪, 초지성주의 가르침” VS “무아로 마음 부정 ‘모순’”

‘깨달음, 어떻게 볼 것인가’ 논쟁 확대일로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이 조계종 교육원장 현음 스님의 ‘깨달음은 이해로 증득된다’는 주장을 반박한 <조계종지의 현대적 구현>이 발표되면서 시작된 ‘깨달음 논쟁’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이어가고 있다.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고경)에 현음 스님을 비판하는 기고를 발표했고, 불교계 학자들도 논쟁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 1078호 1면, 1079호 3면 참조>

현재 논쟁은 온라인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홍창성 미국 미세사주립대학 교수는 교계언론 <미디어부터>에 기고한 글을 통해 수불 스님의 반론을 재비판했다.

홍 교수는 자신의 기고문 ‘초(超)지성주의와 반(反)지성주의’를 통해 “현음 스님의 ‘이해하는 깨달음’이 반지성이 아니라 초지성의 영역임을 보여주는 울

바른 견해”라면서 “나아가 중생의 역사 현장에서 깨달음을 적용하고 실천하며 율음을 확인하고 깨달음의 깊이를 더해 가야 한다는 현음 스님의 주장은 재가자들에게는 합리적인 수행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수불 스님과 한국 불교의 선문(禪門)에 대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홍 교수는 수불 스님의 ‘깨달음이란 마음을 깨닫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선문에서 말하는 참나 또는 청정한 마음에 대해 기술한 바리문과서 말하는 아트만(Atman)에 대한 기술과 다르지 않다”면서 “석가 세존은 아트만을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아를 설교해 논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문에서 강조하는 깨달음의 경험은 ‘철학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신비한 체험을 통한 깨달음을 인정하는 선문의 방법으로는 21세기 사

홍창성 교수, 수불 스님 반론 비판

“禪門의 선민의식 무척 곤혹스러워”

김홍근·한자경 교수 재반론 이어가

“선학과 교학 병행 발전이 필요해”

정평불, 15일 ‘깨달음’ 주제 세미나

인문학적 접근 통해 개념 논쟁 탈피

람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간화선 수행자인 김홍근 동국대 불교학과 겸임교수는 세존의 무아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맞붙을 뵈다.

김 교수는 본지에 기고한 ‘호선론(護禪論)’을 통해 “(홍 교수)선문을 비판하기 위해 가져온 ‘세존의 무아론’은 진짜 부처님의 무아론이 아니라 홍 교수의

머리에서 나온 ‘단명무아론’일 뿐”이라며 “무명칠통을 부수고 전도몽상에서 깨어난 선사들은 ‘불이법’을 ‘마음’이라고 불렀다. 불조계서 연기중도의 불이법을 깨닫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사용한 다양한 방편의 이름 중 하나가 무아요, 마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홍 교수의 화두관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김 교수는 “수 백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일생을 걸고 도전한 것이 ‘마음’인데 이를 책 몇 권을 읽고 날로 먹으려는 것은 진리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면서 “홍 교수는 화두를 년센스로 보고 있다. 년센스를 통해 깨닫는다면 생사 문제 해결을 위해 출가 수행자가 될 이유도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도 홍 교수의 주장에 반론문을 <미디어부터>에 발표했다.

또한 한 교수는 한국불교가 교학과 선학을 병행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훌륭한 교학자는 지도를 가르치면서 산에 갈 마음을 일

으키게 하는 자이고, 좋은 선승은 지도에서 못 보던 산수를 생생하게 즐길 수 있게 산길을 안내하는 자”라면서 “지도보기와 등산하기, 이해와 깨달음, 교학과 선학은 그렇게 함께 해야 한다. 둘이 함께 발전해야 한국불교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깨달음에 대한 개념 논쟁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가 이뤄졌다. 정의평화불교연대(대표 이도흠)는 1월 15일 ‘지금 여기에서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세미나를 불기2560년 성도제일 맞아 개최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이도흠 중앙대 교수는 이해와 선정을 넘어 불법(佛法)의 진여 실체에 다다르는 길이 무엇인지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언어와 의식에 기초한 이해의 방식으로는 진여 실재에 이를 수 없다. 하지만 언어가 몸과 삶을 바탕으로 사고를 구성하고 촉진하는 것은 일정 정도 사실이기 때문에 언어와 의식을 전적으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음 스님은 전자를 수용해 언어와 의식을 벗어나지 못한 이해로는 궁극적 진리에 이를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하며, 수불 스님 등 간화선을 옹호하는 이들은 후자를 수용해 언어와 의식을 사다리로 삼아 진리에 이르는 방편을 깨달음의 또 다른 방식으로 옹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수행의 최종 목표는 중생의 고통을 직시하고 극복해 열반에 이르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교수는 “이 시대 수행자로서 보살은 수행과정에서 간화선을 비롯한 대승의 수행방법에 기반한 정신적인 수행과 일상의 삶 속에서 자비심을 실천하는 몸의 수행을 동시에 포용해야 한다”면서 “몸과 마음의 불이적 관계성에 관한 인식과 실천, 수행 과정과 깨달음, 이 순간의 자비의 손길이 구체화됨으로서 한국 불교는 종교이면서 철학, 윤리의 보고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기고문 27면>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자비나눔 ‘화제’

2013년 장학회 결성...경주 동국대와 자매결연 후원

장학금 지급 등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 스님)의 나눔 선행이 지역 민들에게 훈훈한 미담으로 화제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은 1월 10일 대웅전 범당서 일요 법회 후 인근 호계고 3년 김원철 군(중앙대 입학)과 김주희 양(부산고대 입학)에게 각각 3백만원씩 장학금을 수여했다. 특히 이날 장학금은 신도회측서 동지팔죽을 팔아 남긴 수익금을 한데 모은 것이다. 이날 혜안 스님은 “우리 선원은 동지를 비롯해 산사음악회 등 각종 행사 때마다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아 가장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원이 이처럼 장학회를 결성한 것은 2013년 3월. 개원 이래 신도 자녀 및 인근지역 학생중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해 오다 체계화된 조직의 필요성을 느껴 창립됐다. 울산지원장학회는 결성 후 한 구좌를 3천원으로 정해 기금을 적립하고 해당학교에 추천 받아 지급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4명의 고등학생들에게 각각 3백만원씩 전달했다. 또한 2014년에는 경주 동국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장학금을 후원했으며,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에도 소정의 금액을 기부하는 등 울산지역 자비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김주일 기자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1월 10일 대웅전 범당서 장학금을 지급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원철 군, 혜안 스님, 김주희 양.

봉은사, ‘타 사찰 및 남성 신도’ 증가 추세

2016 1월 <봉은판전>서 ‘2015 새신도 센서스’ 결과 발표

‘봉은사역’ 신설로 접근성 ↑ 영향
2015 하반기 1,021명 신도 등록
새 신도 中 남성 17% 차지 ‘눈길’

지난해 서울 봉은사에 신규 등록된 신도들은 어떤 이유와 경로로 봉은사를 찾았을까?

2015 하반기 봉은사 신도로 1,021명이 신규 등록했다. 이중 17%(170명)는 남성이며, 타 사찰 재적 신도가 5%의 비중을 차지한 점이 눈길을 끈다.

타 사찰로부터 유입된 신도 수가 증가 추세를 나타낸 점은 지난해 ‘봉은사역’ 신설에 따른 접근성 향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봉은사(주지 원명)는 2016년 1월 <봉은판전>을 통해 ‘2015 새신도 센서스’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봉은사 새신도(2015년 7월부터 12월 15일 등록기준) 1,021명에게 ‘봉은사 신도가 된 이유·경로’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응답자들은 ‘어떻게 봉은사 신도가 되셨나요?’란 질문에 가족권유(40%), 친구권유(30%)에 이어 사찰소식지(약 4%), 홍보물(약 3%), 기타(20%)라고 답변했다. 특히 사찰소식지와 홍보물은 인터넷(약 1%), TV(약 1%)보다 높게



봉은사에서 한 불자가 신도로 가입하고 있다. 봉은사는 2015년 하반기 1,021명이 새신도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나타내며, 불교 포교에서 오프라인 매체가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응답자 가운데 5%가 다른 사찰에 재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봉은사 측은 “최근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개통으로 인해 접근성이 높아진 한편, 최근 ‘강남스타일’로 대표되는 ‘K-컬처’에 연유한 후광효과로 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새 신도 가운데 17%인 170명이 남성 신도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김철동 봉은사 신도회 부회장은 “젊은 시절 사회생활을 주로 하던 남성들이 중년이 되면 갈 곳이 없어진다. “그런 면에서 남성들의 신도등록 계기 중 ‘불교관심’ 수치가 높게 나온 것

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봉은사 신도가 된 이유’란 통계 결과는 기도·불공 63%, 교육 11%, 참선 10%, 불교관심 9%, 법회 4%, 봉사 3% 등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본질은 기복신앙서 비롯되기 때문에 ‘기도·불공’이 1위를 차지한 데는 이변의 여지가 없으나, 이 가운데 ‘교육’이 2번째 이유로 선정된 점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봉은사 측은 “봉은사가 교육도량이라는 점을 입증한 결과”라면서 “뒤이어 ‘참선수행’과 ‘불교관심’이 각각 10%, 9% 수치를 나타낸 것은 신도들의 교리적 이론에 대한 목마름을 반영한 것”이라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종회, 종헌종법 상치 종령 전면 검토키로

종헌종법과 상치되는 종령에 대한 전면검토가 시행된다.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위원장 함결)는 1월 11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종헌종법과 종령간의 상치된 부분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종회에 법안 개정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날 함결 스님은 “종헌종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종령이 많은 상황”이라며 “분기별로 이런 법령을 검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종회 전 총무분과회의는 타 분과회의가 다루지 않는 여러 사안을 함께 다루어 한다”며 “중앙선관위 등에도 업무사항에 대해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총무분과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영담 스님이 조계종 중앙종회의 의원 제명 결의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징계사유가 명확하다고 재확인 했다.

이와 함께 제주 관음사 주지 후보 자격심사 이외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소관사항과 선거 과열양상에 대한 종회차원의 대응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회의에는 위원장 함결 스님과 간사 화림 스님을 비롯해 진화, 동산 스님 등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강남 생활권 제2종 주거지역 과천토지 매각!

-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정책에 따른, 제2의 강남인 과천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 -

과천시 2020핵심전략 1순위 -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그린벨트 규제완화 최대 수혜지 예상지-과천”



4호선
선바위역
800m

국토부, GB 해제 집단취락지역 실태조사 실시!
재산권 행사 허용 등 규제 개선으로 개발 탄력 받을듯...

- 국토부, 주민 실태조사 등으로 개선안 마련계획 (2015-05-21 한국경제)
- 30만㎡이하 지역에 대한 해제 권한, 국토부에서 지자체장에게 이관
-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 절차 진행중 (7곳 해제, 12곳 용역 검토중)

매각지

과천 강남벨트하 구상

- ▶ 과천 “강남벨트 조성” 구상으로 지하철 신분당선 양재IC역 또는 3호선 양재역 연결 추진 등 개발제한구역에 신시가지 조성 구상으로 강남을 연계한 One-Set City 조성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상대
- ▶ 과천시-경기도시공사와 지역개발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글로벌 비즈니스타운 조성계획 (주안동, 과천동/ 약 800,000㎡)
- ▶ 지식정보타운 주택지구 및 지하철역사/ 과천화훼종합센터 추진
- ▶ 과천시-경기도시공사, 체계적 지역개발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동산 매각개요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일대(도시지역 자연녹지) - 그린벨트

구분	공급면적	매각가
A블럭	330㎡	1억 2천만원
B블럭	330㎡	1억 1천만원
C블럭	330㎡	1억원

■ 청약금: 100만원 ▶ 농협 355-0038-4227-43 (주)경기토지개발

※ 인접 토지의 경우, 1,500~3,000만원의 시세가 형성중 (공시지가: 700~800만원)

3.3㎡당 100~120만원
(분양단위 : 330㎡)

시행사 (주)경기토지개발 ■ 소유권 등기: 법무사

청약신청 (현장관리자) **02)2058-0132**